

일자리 찾아 脫제주 가속화

20대 순유출 2018년 145명 → 2020년 1178명 A씨 “제주는 일자리 부족하고 연봉도 적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는 20~30대 청년이 느는 등 젊은 인구의 탈 제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호남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제주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역 20대 젊은층은 학업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45명 순유출을 시작으로 2019년 1029명, 2020년에는 1178명이 제주를 떠났다.

또 통계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0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도내 산업구조(2018년 기준)는 1차산업 9.9%(전국 1.9%), 3차산업 73.8%(전국 61.6%)로 전국보다 높은 반면 2차산업 비중은 16.3%로 전국(36.5%)보다 크게 낮았다.

제주에서 취업자가 많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직업종류별(51개, 군인 제외) 도내 취업자는 ▷농축산 숙련직 5만6000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4만1000명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만6000명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역직 2만5000명 ▷보건사회 복지 및 종교 관련직 2만1000명 순이었다.

직업대분류(9개 군인 제외)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100만~200만원 미만의 경우 단순노동 비중이 40.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종사자(36.0%), 농업·어업숙련 종사자(29.2%)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를 떠난 이들 대부분은 원하는 직종 관련 일자리 수가 너무 적다는 점과 함께 연봉의 미스매치가 주를 이뤄 결국 타지역으로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3년째 제약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30)씨는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 제주에서 잡을까 고민했지만 회사도 적고, 그마저도 사람을 뽑고 있지 않아 상경했다”며 “제주에서 일을 하는 몇몇 지인들은 연봉이나 복지 상황이 열악해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울산에서 공장을 다니는 제주 출신 B(28)씨는 “집을 사지 못한다면 연봉이라도 많이 받아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제주를 떠났다”며 “이곳의 삶에 만족해 이후 경력을 쌓아도 제주에 내려갈 일은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어린이날인 5일 화창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제주시 한라생태소에서 진행된 ‘숲에서 신나게 놀기’ 체험에 참가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하세요... 목숨 살릴수 있습니다”

제주소방 ‘응급처치 영상 상담서비스’ 작년 2월이후 25명 구해

제주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처치 영상 상담서비스’가 소중한 생명을 잇따라 살리고 있다. 올해에만 11명이 목숨을 건졌다.

지난 3일 서귀포시 법환동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A(53)씨가 이상증세를 느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어 주변에 있던 스쿠버 업체 선박까지 가까스로 승선했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즉시 영상통화로 전환, A씨의 모습이 전형적인 심정지 상태임을 인지했다. 이에 신고자에게 응급

처치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했고, A씨는 곧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제주에서 골프를 즐기던 6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켜 쓰러졌지만, 제주소방의 영상 안내 하에 AED(제세동기) 전 기충격으로 의식을 되찾은 바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제주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처치 영상 상담서비스’는 최초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집합별 응급처치를 음성안내와 관련 동영상 동시 보여주는 것이다. 운영 이후 25명이 목숨을 건졌는데, 올해에만 11명에 달한다.

상담서비스에 제공되는 영상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요구되는 ▷심정지 환자 ▷1세 미만부터 8세까지의 영·유아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작동 ▷기도폐쇄 환자별(성인·인상부·영아) 하임리히법 등이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영상 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난 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율과 자발순환 회복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5대의 수보대(119상황실)에서 13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산간도로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 추진

경찰, 과속 단속 범위 확대·제한속도 하향 조정도

지난달 6일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4중 추돌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산간도로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 추진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5·16도로와 1100도로 등 산간도로에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과속단속 범위 확대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타 지역의 사례와 법령을 검토한 후 화물운송협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의 의견을 받

아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전달했다. 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달 중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간 단속의 연장과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도 나선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평화로에 구간단속기를 설치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도내에서 운행중인 구간단속은 10개 구간 24대다.

큰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대사거리를 포함해 5·16도로, 1100도로, 제1

산로도로 뿐만 아니라 침단로, 평화로(일주서로) 등 연말까지 24개 구간에 카메라를 기존 2배 이상인 53대까지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로부터 제주의료원 남쪽까지 이르는 10.5km 구간에 이달 1일자로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시범 운용중에 있다.

또 제주의료원 북쪽사거리 제주대학교 병원 입구 사거리까지 2.8km 구간은 5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경찰청은 5·16도로(제주의료원 북쪽-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 2.8km)와 산록북로(노루생이삼거리-산록도로입구 교차로 8.7km)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키로 했다. 강민성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국립대병원 임상교육센터 제주대병원 리모델링 선정

진단부터 완치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공급을 제주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공모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임상교육훈련센터 공모에서 신축 부문에는 충남대병원, 기능 변경(리모델링) 부문에는 제주대병원이 각각 뽑혔다. 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건립·운영 계획 등 기본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적 역할 강화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들 국립대병원에는 신축 부문에 2023년까지 187억5000만원, 재단장 부문에 2021년 25억3000만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전진희기자

보이스피싱, 나만 당할순 없어?

과거 두차례 피해 입은 50대 수거책 활동중 검거돼 징역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로 돌변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 올해 1월 7일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6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두 차례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유”라면서도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은범기자

수상레저 민간구조대 모집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광범위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안전관리 협력체계인 ‘수상레저분야 민간해상구조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지역 지리와 해안 지형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레저업체를 중심으로 ‘민간수상레저 해상구조대’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상구조대는 실제 서귀포시 중문, 표선, 법성 해상에서 익수자 등 6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엔 개인레저 활동자까지 확대해 30~40명(지난해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태양광설비 정부 보조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주택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 단독주택 예산 소진시까지 / 상가건물 5월 11일까지
상담 접수 : 제주솔라에너지(주) 742-5775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2021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